

김은경 “분열은 혁신대상… 이낙연, 본인 역할 알 것”

“이재명 사퇴” 요구, 특정인에 대한 불만일 뿐 혁신이나 힘지 출마 홍익표 의원, 희생정신 담긴 정치문화 롤모델”

민중 혁신위원장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6일 당내 고질적 문제인 계파 간 갈등 양상을 두고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 달린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계파 싸움을 부추긴다면 국민은 실망하고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이 당내 분열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혁신위가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당의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혁신위 첫 회의에서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비명(비이재명)계 수장으로 여겨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계파 싸움 재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절체절명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본인(이전 대표)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서로의 이해가 다르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연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전 대표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 사퇴가 최고의 혁신”이라는 비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파 갈등의 성격을 가진 ‘특정인에 대한 불만’을 혁신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 혁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대표 거취는 혁신위 권한 밖의 일임을 시사했다.

각 계파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대립 양상을 두고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계파 싸움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가 언어를 통해 혐오스러워지는 만큼 그런 것을 자제할 규범 등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서는 “1호 혁신안이 아니라 ‘긴급한 처방’”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한 김 위원장은 “시급히 치료를 해야 하는데 열이 있으면 열부터 떨어트려야 하지 않나”라며 “특권”이라는 말에 붙은 국민의 불신을 빨리 걷어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온다고 하는데 회기 내내 (체포동의)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투표할 건가”라며 “헌법상 권리”라는 주장은 원칙적인 것이고, 지금은 당사자의 방어권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방어권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윤리 의식이 무뎠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민주당에는 규범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스스로 ‘이것만 지나가면 국민이 모르겠지’ 하는 온정주의 등으로 (그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며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는 쪽으로만 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과거 민주당의 혁신이 추진될 때마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대표적인 혁신 대상으로 꼽힌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들의 희생이 감사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개혁 세력을 과잉 대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이 빨리 돌아가 신규 입법 수요가 많은데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며 “청년 세대에 (86그룹이) 그 길을 내 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86그룹 중 한 명으로 당의 협지인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의원에 대해 “희생정신이 담긴 정치문화의 롤모델로, 아주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민중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행보 탄력받나

의원 31명 특권 포기 선언문…다음 의총서 추인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당내 반발 등으로 주춤했던 혁신위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한 의총 결의를 촉구함에 따라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은 다음 의총에서 추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상장 발언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며 “향후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용천(재선)·윤영찬(초선) 등 주요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참여했다. 또 지도부에 속한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뒤이어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만 따지는 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한 제시도 인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권력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지금과 같은 시절에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결심을 하고 의사 표명을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당내 반발 등으로 표류 양상을 보였던 1호 쇄신안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잡혀가면서 혁신위의 행보가 점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차기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꿈수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차기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는 혁신위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제한이라는 명분으로 내년 총선 공천 물까지 손을 대느냐이다.

이는 친명-비명계의 정면충돌 등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당내 소통과 공감대를 통해 혁신과 결집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혁신위의 임기가 9월 초순까지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수해에 상임위 잇따라 연기

본회의·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는 예정대로

여야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상황을 감안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이번 주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회의 대부분을 연기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상임위 일정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앞서 지난 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악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부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1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 폐지법’(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는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려던 일정은 수해 상황을 감안해 취소됐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17일 오후에 예정대로 열린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회사는 2023년 5월 23일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주식회사 탑산금융에너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단지길 32
청산인 윤정택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회사는 2023년 5월 23일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주식회사 서산탑산태양광
충청남도 서산시 대서동1로 47-14,
206호(동문동, 한아름오피스텔)
청산인 윤정택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회사는 2023년 7월 10일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18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단지길 32
청산인 윤정택

사찰 (금) 안내

- 위 치: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약 1,700평
- 가 액: 9억

- 약사여래불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108 돌탑 묘사체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

법인 해산 및 채권계승공고(1차)

당 법인은 2023년 6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1일자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7월 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장덕동) 연락처(062-710-9161)
청산인 최대범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67-6900